◇해주스님

대봉정사 주지·신도 10여명 우란분절맞아 장기기증 서명

우란분절을 맞아 주지스님과 신도회 간부 10여명이 생명공양차원에서 단체로 장기를 기증해 화제다.

태고종 충주 대봉정사(주지 해주스님)는 지난 11일부터 백중불공기간중 생명을 사회에 공양하자고 결의하고 1차로 주지스님, 동참신도등 10여명은 오는 28일 생명공양실천본부에 장기기증서를 접수키로 했다. 또 대봉정사 신도회는 생명공양 운동을 백중불공법회에 참석중인 신도들에게 확산시키기로 결의해 이 운동에 동참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대봉정사는 사찰에서 수용하고 있는 고아들과 무의탁 노인들을 위해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신도회를 중심으로 자비회가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 모범사찰로 발돋움하고 있다.

중국북경대 종교학과 개설

9월 3~5일 국제 종교학술토론회 열어

중국 북경대학이 사상 처음으로 종교학과를 설치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주의 국가로서 종교학연구를 시작하고 그에 따른 국제간 대화를 모색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95년 9월 종교학과 설립을 결정하고 종교학 연구를 위한 꾸준히 토대를 마련해 왔던 북경대학교는 '실사구시 과학정신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종교문화 연구'를 기치로 올해 본과(4년), 연구생과정(3년), 박사연구생과정(3년) 3개 과정에 불교·도교·기독교 등 여타 종교에 대한 전공과목을 포함한 종교학과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북경대학교는 9월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종교학 연구현황과 전망' '오늘날 세계종교 발전의 주요 추이' '각 종교간의 대화와 비교연구' 등을 주제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 국내 학자로는 김상현교수(교원대 역사학)와 윤이흠교수(서울대 종교학)가 초청돼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해외소식

日정토진종 여성주지 임명안 의결

일본의 조도신슈(淨土眞宗)의 한 파인 오타니(大谷)파는 지난 달 동경에서 열린 종회에서 여성주지를 인정하는 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본불교의 주지는 전통적으로 남자에 한해 가능했다. 그러던 것이 5년전 오타니파가 남자 후계자가 없는 경우에 여성이 주지 승계를 인정하기로 했다가 이번에는 조건없이 여성주지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약 7천8백명의 남성주지에 여성주지는 15명 정드로 대처승이 주류인 오타니 종파에서는 주지들의 '부인모임'과 '여성차별을 생각하는 모임' 등이 "아들·손자로 내려가는 세습제가 근본 문제이다. 원래 사찰은 가족의 것이 아니고 구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종단내의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오타니파에서 주지를 계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들이나 손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여성일지라도 주지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여성주지 의결에도 불구하고 오타니파 내부에 여성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고보우스님 법어·논총' 10월 발간 준비

中 구법행로 700리 고증답사

덕암·운제스님등 조사단 15명 잘못 전해진 임제법맥 재조사

태고종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덕암스님)은 태고 보우스님의 구법 7백리길 발자취를 따라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현지답사한다.

이번 중국답사는 오는 10월 〈태고 보우국사 법어 및 논총〉 발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태고스님 출생지부터 열반지까지 7개월동안 태고스님의 국내유적지 20여곳을 현지답사한데 이은 것이다.

덕암스님(선암사 방장)을 단장으로 운제스님(전 총무원장) 혜초스님(총무원장) 한정섭법사(한국불교교화원장) 무공스님(대륜불교문화연구원장) 최석환씨(불교영상회보사 실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이번 조사단은 태고스님의 구법기 가운데 잘못 전해지고 있는 부분을 고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태고 보우스님이 한국에서 견성하여 중국 석옥화상과 문답한 것을, 석옥화상에게 법을 배워 인가를 받고 임제의 법맥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 잘못된 부분을 고증키 위한 일환이다.

조사단의 중국답사는 태고 보우스님이 2년간 주지를 하면서 고려 공민왕이 볼모로 중국에 잡혀와 법문을 듣고 '차후에 왕이 되면 태고 보우스님을 국사로 모시겠다'는 다짐을 했던 북경 영령사지와 대관사를 방문한다. 원나라 수도였던 개봉의 최대사찰 상국사 임제선풍의 고향이며 석옥 청공화상과 만난 항주 천호암 그리고 개봉박물관도 답사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이미 국내최초로 태고 보우스님이 신돈에 의해 유배당한 전주 보덕산 보광사지 위치를 찾아내고 구산선문중 하나인 가지산 보림사에서 깨달음을 얻고 가지선풍이 쇠퇴한 고려말 주지를 맡아 임제선풍을 일으켰다는 자료를 수집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태고보우국사 법어및 논총〉은 덕암스님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필생의 역작으로 힘을 쏟고 있는 1천쪽 분량의 책자. 20쪽은 태고 보우스님 유적지 사진집이고 5백쪽은 일대기 및 법문, 5백쪽 분량으로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논문이 수록된다.

한편 덕암스님은 중국답사의 성과를 묶어 별도로 〈중국유적지 답사기〉라는 제목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이 또한 태고 보우스님의 기록이 많지 않은 학계에 중요한 사료가 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원우 기자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조사단이 문경 봉암사를 방문하여 주지 효광스님으로부터 봉암사에 모셔져 있는 태고보우스님 부도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진각청년수련회 성료 진각종 전국청년회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울릉도 금강원에서 제 23회 하기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청년회원들은 진각종 창종 50년과 진각청년의 상관성을 깊이 새겨 지역교화 활성화에 힘이 될 것을 발원했다.

목탁소리

특수포교 나서야한다

임 연 태 〈취재3부 차장〉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은 사람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포교라 한다. 포교의 시원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이후 다섯비구를 찾아가 설법을 한데서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이 최초의 포교사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다섯비구를 직접 찾아 가신 점이다. 포교는 대상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지 앉아서 해서는 안된다는 무언의 가르침을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불자 개개인이나 각 종단의 포교담당 부서들에 대해 포교 채점을 한다면 상당히 부끄러운 점수를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개인을 향한 포교의지는 차치하고라도 집단에 대한 포교의지도 매우 산만하고 미약하기 때문이다.

90년대 들어서 직장이나 군부대 교도소 태능선수촌등 특수집단으로 이어지는 포교의 발길은 꽤 분주한 편이었다. 더욱이 예술 스포츠 바둑 등 대중적 영향력이 급증하는 특수분야는 개인 집단의 구별없이 포교적 관심이 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교의 결과는 언제나 미지근하다. 가장 중요하게 꼽아야 할 원인이 있다면 체계성과 전문성의 부족이다. 어떤 조직에 의한 포교전략도 없이 산만하게 특수집단 포교를 벌여 온 그간의 노력을 이제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전략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간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교단차원에서 포교적 성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 특수분야에 대해 인력과 프로그램을 갖추면서 최첨단 포교를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자 인기국악인이 불자 올림픽금메달리스트가 불교계가 불자라고 떠드는 동안 지극히 개인적인 의지에 의한 개종을 두고 불교계는 포교의 허실을 따져야 한다. 그것은 한 사람을 귀의시키는 기쁨보다 한 사람의 불자를 잃는 슬픔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핫·프·로

'대승의 꽃 동북아불교' 3부 다큐

불교TV '한중일 불교대회 특집' 9월9일 방영

불교TV가 제2회 한중일 삼국불교대회에 맞춰 독특한 대승불교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불교의 오늘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 3부작 (가제) '대승의 꽃 동북아 불교'(PD 임동민)를 오는 9월9일~11일 3일간 방영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현지취재를 통해 생생한 불교의 숨소리를 전달하게될 이 프로는 먼저 제1부 〈다시 피어나는 연꽃 중국불교〉에서는 남성과 지식층,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 중국 거사불교의 신행모습과, 경제개방화 물결로 윤택해진 중국인들의 종교생활, 그리고 중국불교의 중요한 복원사업의 하나인 석경산 1만여점의 석경도 소개된다.

제2부 〈생활속에 뿌리내린 일본불교〉에서는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일본인들의 생활 깊숙히 존재하고 있는 일본의 장의불교, 종파불교, 해외포교의 현황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3부 〈대승으로 불국토를 한국불교〉에서는 한국불교의 오늘을 살펴보고 미래 한국불교의 과제와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일본 보문사의 한 스님과 일본불교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임동민PD.

방송가 소식

보각스님·유하영씨 'TV불교백과, 그건…' 진행

◇보각스님

◇유하영씨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스님과 탤런트 유하영씨가 불교TV 가을개편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TV불교백과, 그건 이렇습니다'(PD 김대우)를 진행한다.

'TV불교백과…'는 신행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초심자들의 불교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알기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TV불교백과사전.

이 프로에서 보각스님은 불자들의 궁금증을 간결하고 쉬운 해설로 설명하게 되며, 탤런트 유하영씨는 신행의 현장을 찾아 불자들의 궁금증을 대변할 예정.

'유리' '만다라' 등 출품 부산국제영화제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PIFF)가 오는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려 세계 32개국 총 1백71편의 화제작이 소개된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아시아 신인감독들의 첫번째 작품이 소개되는 새로운 〈경향(New Currents)〉 부문에 우리나라 양윤호감독의 '유리'가 올라있다. 또한 80년대부터 95년까지 만들어진 한국 뉴웨이브영화를 돌아보는 회고전(Retrospective)에는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가 선보일 계획이다.

시청자위원회 발족 BBS 불교부산방송

BBS불교부산방송은 제1회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지난 9일 부산 크라운호텔에서 개최, 15명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김무조, 부위원장에 강동균, 문종술, 김둔숙, 총무에 이종관 위원을 선출했으며 부산지역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자체제작 비율을 높이고 질높은 방송을 위해 방송사고 예방 등을 논의했다.

수행자 양성 전문 교육(1년과정)

제1기 불교(禪敎) 과정 신입생 모집

1. 현묘 선원 개설 취지
선(禪)과 교리(敎理)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독록 지도하여 선교일치를 이루어 견성 성불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계합하는 수행자를 양성코저 현묘 선원을 개설함.
2. 모집안내
가. 과 정: 선교(禪敎)과정
나. 모집인원: 50명
다. 접 수: 96년 8월 20일 ~ 9월 9일
라. 개강일시: 96년 9월 9일 오전 10시
마.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3x4) 2매
바. 문 의 처 : 선원 사무국 (02)3474-9619
3. 교과목: 시간 , 교수
가. 월, 수, 금 : 오전반 10:00~ 13:00 불교교리: 고영섭 교수
선수행지도: 문경섭 교수
오후반 14:00~17:00 불교교리: 고영섭교수
선수행지도: 문경섭교수
나. 화, 목, 토 반 가항과 동일함
4. 교수 저서및 학력
고영섭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저서: 불교경전의 수사학적 표현(경서원)
문경섭 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및 행정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저서: 국유현요지도(서림문화사)
5. 위 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44-12(지하철 3호선 양재역 7분거리)

전화: (02)3474-9619

玄 妙 禪 院

원장 無虛金人

막힌곳을 편안하게 통하게 해주는 氣針法 !

파-워침 요법

■ 파-워침 요법은 전혀 피부를 찌르지 않고, 압통점(경혈)을 자극하여 통증을 조절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신속하고 획기적인 동양의학용법입니다.
■ 파-워침 요법은 머리, 허리, 어깨, 목, 관절, 팔, 다리, 무릎 등 불편한 곳에 대고 지그시 눌러주면 즉석에서 편안해지는 체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1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파-워침의 효능! 사용해 보신 분들이 주위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면 일단 5분만 체험해보세요!

<반영구적제품>

〈파-워침 종합세트〉

머리, 허리, 어깨, 목, 다리, 무릎이 아프십니까?

보건복지부 허가 제 558호
보건복지부 품목허가 제1호

※ 5분 무료 체험 교실 운영 (수시방문)

우체국 013193-0047886 김광식
농 협 100067-52-124519 김광식

⊙ 파-워침 / 원기 보존법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덕산의료기 파워-침 연구학회
전화문의 02) 455-6944(대)

-우학스님 수필집-

저 거 는 맨 날 고 기 묵 고…

이 시 대 베스트셀러

-나오는 내용-
동성연애자의고민
선방·강원·토굴이야기
귀신의 장난
가정우환 소멸법
영가천도
정력 …비법
이성을 사로 잡는법
잉꼬부부
출가의 험한 길
정통불교 수행
산중의 스트립쇼
죽음이후의 세계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큰 스님의 경책

-좋은인연 책들-
1 새로운 불교 공부 (불교 기초교리 강의서)
2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어린이 및 초심자 교리 문답서)
3 불자수행지침서 (신도 신행 의식집)
4 불교한자공부·사경및 해설 (금강경·천수경·반야심경·법성게·화엄경약찬게·예불문·아미타경)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가까운 서점에서 찾으세요
도서출판 좋은인연(053)475-3706-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주·야간 9월 개강) (053)474-8228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님들께서 항상 지니면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제작 하였습니다

■ 기본판 국반판 256p · 고급비닐커버 ▶ 정가 2 000원
■ 증보판 국반판 352p · 고급비닐커버 ▶ 정가 2 500원
※ 법보시 하실 사람 환영합니다

우리말 지장경
석 일 화 편저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5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출판사 ☎(02)723-4306~7 FAX 738-8682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